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

- 디지털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

박재영**

목차

들어가기

I. 문화유산과 민족동질성

II. 통일교육을 위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

1. 남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

2. 북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

나가기

들어가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해 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녀왔다. 하지만, 분단 이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6.25, 체제경쟁, 그리고 남한 사회의 정치적 지향이 반공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점 등은 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가진 북한을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멀고 먼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A00013).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계기로 작용하였다.¹⁾ 지난 2000년, 200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한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현저하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51.1%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고학력으로 갈수록 통일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 또는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몇몇 통일교육 시범학교 외에는 매우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즉,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시와 관계없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³⁾

통일은 궁극적으로 민족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현실적 목적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지난 60여 년 간의 이념과 체제의 대립으로 지속된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넓고 깊게 담지 할 수 있는 요소는 남북 공히 문화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문화는 상대적으로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적고 쉽게 한 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제이다. 또한,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이

-
- 1)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 교육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1 No.2, 2008, 135-163쪽.
 - 2) 최근에 수행된 통일관련 청소년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자료들을 참조할 것. 박윤식, 『중고생들 통일 필요하지만 관심없다?』 『통일한국』 통권 제315호, 2010.03, 36-37쪽; 손기웅,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차 청년위원회 결과보고』(2006.06), 4쪽;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통일에 관한 청소년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2004; 정항식, 『학생들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실태분석』 『호남정치학회보』 Vol.15, 2003, 111-113쪽;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04-05)』, 2004, 67쪽.
 - 3) 권수현, 『학교통일교육현장 1: 당위만 강조하고 내용은 부실』 『통일한국』, 2004, 10월 호, 71쪽.

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도를 모색해야겠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⁴⁾은 분단 이후에도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문화의 뿌리이자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제도적인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현재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남북한의 문화의 거리를 좁히고 의식의 통합, 마음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학교 통일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아울러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이미 나름의 대북관, 통일관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장차 그들의 대북관과 통일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주입식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통일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청소년 세대들의 통일교육은 그저 듣고만 끄덕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⁵⁾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이해해 갈 때 진정 그 의미와 중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이 이념과 체제의 괴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4)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의거한 정의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적 중요 유산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축물이나 역사적·심미적·민족학적·인류학적 관점에서 가치를 지닌 유산이 포함된다. 김성우, 『외국의 문화유산 보전 동향』 『도시문제』, 2008, 3월호, 47쪽.

5)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요구와 바램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통일지향적인 통일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당연한 지적이지만, 다른 한편 과거의 통일교육이 피교육자의 무관심을 양산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 『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통일한국』, 2002년 2월호, 58쪽.

있는 전통문화유산에 기반 한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먼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⁶⁾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자료들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이데올로기의 편향성을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다원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더구나 통일교육과 문화유산교육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학술 논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는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그에 대한 다양한 학습 자료의 부족은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⁷⁾

본 논문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사이버 문화에 익숙한 'N세대'인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권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에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웹 서비스의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⁸⁾ 첫째,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국내에서 구축된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셋째,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화의 현

-
- 6)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습 자료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편향된 성향이나 그릇된 시각에 기초한 정보와 비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다. 김석준, 『디지털시대의 통일교육 -통일교육 전용의 특화사이트 개설 필요』 『통일한국』, 2008, 1월호, 66-67쪽.
 - 7)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통일교육 관련 연구와 문화유산 관련 연구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한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 8)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은 통일에 대한 지식이나 지적 탐구보다는 통일에 대한 자세나 신념, 태도와 관련된 행동적, 정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과 과제, 끝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를 어떻게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언급하고자 한다.

I. 문화유산과 민족동질성

지난 60여 년간 냉전시대의 통일교육은 상이한 체제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다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왔고, 심지어 상호 적대감의 누적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민족적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에 서로가 ‘다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음’도 존재한다는 동질감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⁹⁾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남북한의 문화를 바라봄에 있어 두 갈래의 인식이 쟁점이 되어 왔다. 그 하나는 민족내의 이질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견해이다. 이 같은 인식은 분단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산주의라는 이질적인 사상체계가 민족 간에 위화감과 이질화를 더 심화시켰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다른 하나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상이나 이념 등으로 인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수천 년 동안 이어 온 민족적 동질성이 단기간 내에 변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후자의 견해는 반만년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극히 작은 60여년의 분단 속에서 형성된 이념적 이질화는 그 동질성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남북한의 문화는 이질성 보다 동질성이 강하며 따라서 동질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질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통합에도 저해요인이 된다.¹⁰⁾ 그러나 여기에

9)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 교육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1 No.2, 2008, 135-163쪽.

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 논리가 가진 공통점인데 그것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60여 년 동안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일구어오는 동안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전통문화 부문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문화란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문화, 세시풍습이나 전통놀이, 문화재 등 과거에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까지 전승된 문화로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누리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즉, 전래되고 전수된 전통이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걸러 낸 사회적 공감이자 합의인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전승은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며 더불어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민족적으로는 민족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있다.¹¹⁾

분단 이후 남북의 상호불신과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족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민족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민족동질성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이며, 통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남북한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이질화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아 온 세대들에게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같은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¹²⁾

10) 박상천 외,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13-15쪽.

11) 윤기영, 『유아 통일교육을 위한 전통문화교육 적용상의 과제』 『한국영유아교육학』 Vol.38, 2004, p.258.

문화적 측면에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치적·영토적 통합이나 경제적 통합 이전에 남북 양 문화부문들 간의 접촉과 교류의 활성화와 다변화를 통해 상호 문화적·정서적 차이와 거리감을 해소하고 통일 지향적 정서를 확산시키며 민족의 동질성과 정서적 공감대를 복원하고 새롭게 확대·발전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¹³⁾ 문화적 관습, 가치, 제도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차원은 정치나 경제 및 다른 사회적 차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과 속도가 급격하지 않으며 나름대로의 고유한 발전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치논리에 의한 현장의 불안과 혼란, 교육담당자의 왜곡된 인식과 갈등, 상이한 관점에 따른 편파적 교육자료 등 교육실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 교육현장의 여건 불비, 학생들의 실제 삶과 괴리된 교육 등, 전통문화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문제와 전통문화교육의 문제는 민족문화전승을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접근한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민족동질성 회복과 관련하여 전통문화교육을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교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시켜 보면,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전통문화유산 교육의 효율적 운영의 관건

12) 오기성, 앞의 논문, 138쪽.

13) 문화발전연구소가 실시한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적으로 교류해야 할 분야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문화(116명/54%), 언어(40명/18%), 문화제와 전통문화(28명/13%),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화(14명/6%), 문학(8명/4%), 도서출판(6명/3%), 연극(2명/1%), 영화(2명/1%)。 이러한 설문 결과는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전통문화의 공유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1993, 100쪽.

은 교사이다. 따라서 현직 교사교육을 통해 통일 및 전통문화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개선과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방향, 목표, 내용, 학습경험의 선정, 교수자료, 교수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과 자료를 소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동질성 못지않게 남북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다. 오랜 세월 각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분단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분명하게 이질적인 문화가 존재한다. 통일교육을 민족의 동질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존하는 이질적인 요소는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고 오히려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서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을 받아들여 남북한의 동질성 재발견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각각 다르게 사회화 과정을 거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이질성의 극복은 배타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질성을 수용함으로써 동질성과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은 바로 통일의 파트너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출발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셋째, 민족고유성 확보 차원이나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남북한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를 확인하고 앞으로 무엇을 함께 계승·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통일축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 관습, 언어 등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이해를 지님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일체감

14)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족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발점이라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통일부,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2003.

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민족동질성 구축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충실한 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유용한 방안이 바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다.

II. 통일교육을 위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

‘세계화’, ‘정보화’의 열풍과 함께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와 열린교육 시대에 학습자들에게 정보화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적합한 개별화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첨단 매체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일상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북한·통일 관련 사이트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그 운영 주체도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개인 등으로 다양해 졌다. 물론 북한과 통일이라는 주제를 표현해 내는 방법과 자료적 한계로 전체적인 질적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일단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15) 북한 및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의 질적 수준은 점차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개설된 사이트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통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문화예술훈(<http://www.nk-culture.re.kr>)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http://www.nktech.ne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http://www.acdpu.go.kr>), 북한문제조사연구소(<http://www.koreascope.org>),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정보뱅크(<http://www.nk-infobank.com>), 중앙일보 북한네트(<http://www.nk.joins.co.kr/info.html>), 조선일보 북한문제연구소(<http://www.NKchosun.com>). 김석준, 『디지털 시대의 통일교육 -첨단 기술 통한 고품질의 통일교육 제공한다』 『통일한국』, 2007, 4월호, 100-101쪽.

특히, 컴퓨터 통신 및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한정된 자원으로 이루어지던 학습활동의 한계를 탈피하여, 기존의 교육에서 실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보다 폭넓은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¹⁶⁾ 이렇게 인터넷 활용에 다른 교육은 새로운 시대 주역들의 눈높이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안이며, 통일교육 기관과 통일교육에 관련된 수요자들은 더욱 새로운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은 어떠한 상황에 와 있는가?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본 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구축의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남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가 거의 빛의 속도로 가상공간을 가로질러 오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가상공간을 타고 흐르는 내용물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고,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물로서 ‘문화’가 한층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같은 흐름에 힘입어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킨 것은 물론이고 문화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된 지식정보

16) 학습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학습시간, 방법, 속도 등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틀에 짜여진 학습시간에 얽매이거나 수준에 맞지 않은 강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일률적인 학습 속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양정훈, 『통일교육의 방송·인터넷 활용방안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0권 제4호, 2006, 391쪽.

자원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 재정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전통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민간부문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01년 1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법제화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라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이어졌으며,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으로 1999년부터 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거나 디지털화에 의해 이용 가치가 높고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역사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가 ‘국가지식포털’이다.¹⁷⁾ ‘국가지식포털’은 인터넷에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 천여 개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국가 지식 포털사이트이며, 한 번의 검색으로 천여 개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일괄해서 파악할 수 있다. ‘국가지식포털’ 사이트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학술(국가 학술연구 DB, 기초 학문 종합 정보 서비스 등), 건설기술, 산업경제, 문화(국가 문화유산 종합 DB¹⁸⁾,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정보 DB, 멀티미디어 제주, 역사(한국역사정보 통합 DB,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유교문화 종합 DB, 장서각), 기타(21세기 북한

17) <http://www.knowledge.go.kr>

18)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한국 역사분야 포털사이트로, 관련 13개 기관(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상대학교 문진각,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료를 웹서비스하고 있다. <http://www.koreanhistory.or.kr>

자연인문지리 DB, 강릉단오제 및 한반도 단오문화 DB 등)로 분류되어 있으며, 원문 텍스트와 메타데이터(서지, 목록, 초록, 요약, 해제 텍스트), 이미지(지도), 녹음자료,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¹⁹⁾

그리고 국가지식 포털은 통합 사이버 박물관인 ‘e뮤지엄’²⁰⁾이 연계되어 있어 전국 72개 국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공사립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유물을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3D유물감상실을 통하여 박물관에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유물을 검색할 수 있다.²¹⁾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북한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검색할 수 없다는 점인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²²⁾

다음으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국가 지원 사업으로 ‘문화원형’²³⁾ 디지털 콘텐츠화

19)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사업의 후속 편으로 기획되었다. 2003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10개년에 걸쳐 1,1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향토문화 자료들을 집대성하는 초대형 지역문화 콘텐츠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http://www.aks.ac.kr/aks/Default.aspx>

20) <http://www.emuseum.go.kr/cyber.do>

21) 국내 박물관 및 기관으로 가상전시실을 구축한 사례는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로댕 갤러리 등인데, 대부분이 이미지 기반의 가상 현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가상 과학박물관, 부산 해양 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가상 체험관, 지적박물관에의 사이버 전시관 등이 있다.

22) 하문식, 『북한의 박물관』, 『박물관학보』 제5호, 2002; 장경희, 『북한의 박물관』, 예맥, 2010.

23) ‘문화원형’이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사용한 용어로 한국적인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닌 문화의 원천자료로서, 문화콘텐츠로 가공하기 이전 문화콘텐츠의 소재가 되는 한국의 전형적인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 배영동, 『문화콘텐츠화 사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역사, 문화, 예술, 민속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원형을 디지털 콘텐츠화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창작 소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원형 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원형을 디지털콘텐츠 화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는 것에 주된 목표가 있다. 2002년부터 2010년 현재 까지 선정된 과제는 <표 1>과 같다.²⁴⁾

<표 1> 연도별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과제 내역(2002-2009)²⁵⁾

연도	사업과제	과제수
2002	<고려복식>, <고선지 실크로드 개척사>, <단청문양>,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 <디지털 민화>, <디지털 폰트>, <디지털한양>, <마리공주 서사창작>,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통건축>, <산조>, <소리는 행>, <신화의 섬>, <제주>, <암행어사>, <연오랑 세오녀>, <옛집(YETZIP)>, <오방대제>, <오색채운>, <자수문양>, <전통건축과 장소>, <전통국악기 샘플 데이터>, <전통놀이>, <전통한선의 디지털복원>, <조선시대 대하소설>, <조선의 국왕경호>, <조선통신사>, <종묘제례악>, <진법>, <토정비결과 한국인>, <팔관회>, <풍속화 콘텐츠>, <한국신화>, <한국의 고유복식>, <한국의 몬스터>, <한국의 배>, <한국의 불화>, <한국의 탈>, <탈춤>, <한민족 전투원형>, <화성의궤>	40
2003	<감로탕의 디지털 복원>, <고인돌 콘텐츠>, <국악>, <국악장단 디지털콘텐츠>, <궁중문양>, <길상(吉祥) 이미지>, <디지털 악학해법>, <사찰 건축 디지털세트>, <절집>, <상인과 상업활동>, <신라화랑 디지털콘텐츠>, <전통 부적문화의 원형>, <조선시대 기녀문화>, <조선시대 동물화첩>, <조선시대 식문화 원형>, <조선왕실 관혼상제>, <조선후기 시장>, <죽음의 전통의례와 상징세계>, <중국 환타지 문	23

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제6호, 2005.

24)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2002년 40개, 2003년 23개, 2004년 44개, 2005년 35개, 2006년 20개, 2007년 16개, 2008년 6개, 2009년 6개, 2010년 9개 등 199개 과제가 선정되어 개발이 완료되었다. 2011년에는 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5) <http://www.culturecontent.com/>

연도	사업과제	과제수
	학의 원류를 찾아서, <한국대표 서예폰트>, <한국무예 원형 및 무과 시험 복원>, <한국의 도깨비>, <한국친문 우리하늘 우리별자리>	
2004	<e조선궁중여성>, <강릉단오제>, <건국설화 이야기>, <겨레의 노래 아리랑>, <고구려 고분벽화>, <고려사람, 궁궐의례와 공간>, <근대 초기 한국문화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 <기생>,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 <디지털 여항문화>, <디지털 한국석탑>, <목조건축 부채별 조합 조립체형>, <문화와 산업의 대동맥 옛길>, <백두대간의 전통음악 원형>, <백두산>, <불교설화>, <사냥-전통수렵 방법과 도구>, <새롭게 펼쳐지는 신화의 나라>, <서울 근대공간 디지털 콘텐츠>, <신여성문화>, <유랑예인집단 남사당>, <음성원형 콘텐츠 웨어>, <인귀세상>, <전통고기 잡이>, <전통놀이와 춤>, <전통머리모양과 머리치레거리>, <조선 궁중 과학기술관- 천문>, <조선시대 수영의 디지털 복원>, <조선시대 형구와 형벌이야기>, <조선왕조 아동교육>, <천하명산 금강산>, <택견의 이야기와 동작>, <한국고서의 표지문양>, <한국근대의 음악원형>, <한국의 굿>, <한국의 산성>, <한국의 암각화>, <한국의 전통 춤>, <한국의 전통장신구>, <한국의 풍수지리>, <한국인 얼굴 유형>, <한국전통가구>, <한의학 및 한국고유의 한약재>, <해동성국 발해>	44
2005	<가산풍속도>, <경기도자문화원형>, <독도 디지털 콘텐츠>, <듣는 그림 보는 노래>, <전래동요>, <디지털 창덕궁>, <디지털전통팔경>, <디지털콘텐츠로 보는 앙코르왓>, <바다문화의 원형 단계>, <백제금동대향로>, <산사의 소리>, <삼별초 문화원형>, <승려의 생활>, <씨나라>, <세계의 와인문화>, <용궁>, <우리저승세계>, <운주사>, <유산지 콘텐츠>, <재미있는 한국사>, <전통 일간과 철체연장 사용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전통혼례와 혼례음식>, <정간보>, <조선시대 암호 방식 신호전달체계 콘텐츠>, <조선시대 유배문화>, <첩보>, <최승희춤>, <한국 궁술의 원형>, <한국 술문화>, <한국대표이미지 국보하회탈>, <한국설화 인물유형>, <한국의 도량형>, <한국의 전통다리>, <한국정령 연구를 통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 <한국호랑이>	35
2006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정변(政變)관련 콘텐츠>, <고려사(高麗史)에 등장하는 인물유형>, <국가문화상징 무궁화>, <디지털 한강-한강생활문화콘텐츠>, <삼국사기(三國史記)>, <야담을 통한 시나리오 창작소제>, <역관>, <우리 성(性) 신앙>, <우리 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우리의 장승>, <전통시대 수상교통- 뱃길(水上路)>, <줄타기원형>, <달라순력도>, <택견의 미완성 별거리 8마당>, <표해록>	20

연도	사업과제	과제수
	<한국불교 목공예의 정수 수미단>, <한국의 24절기>, <한국적 감성에 기반한 이야기 콘텐츠>, <한국전통 문화공간인 정원과 정자>, <효명세자와 춘앵전의 재발견>	
2007	<고대 재야지식인의 활동상의 현대적 조명>, <고려 거상의 현대적 조명>, <고려가요의 디지털콘텐츠화>, <고려시대 여인의 당당하고 의연한 삶>, <공연문화의 원형인 근대 극장 원소스 개발>,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구한말 외국인 공간: 정동>, <나무와 주막>, <대백제 이야기>, <디지털 삼국유사 사진, 박물관 시범개발>, <디지털 전통연희사전 시범개발>, <처용설화>, <판타지 삼국유사>, <한국문화 택리지 시범개발>, <해초의 왕오천춘국전>, <物流와 文流기반의 항구문화>	16
2008	<간이역과 사람들>, <고려시대 '주화' 로켓과 화약무기의 디지털화>, <고려시대 주거공간>, <근대병원 이야기>, <한국 최초 조선 요릿집 '명월관'>, <한국의 고택>	6
2009	<경성의 유희문화공간(카페.다방)>, <악인>,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원효대사 스토리뱅크>,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콘텐츠>, <한반도 해양문화 원형>	6
2010	<함께 읽는 용비어천가>, <한국 조립발음 알립장>, <한국 전통의 답>, <이야기 온천사>, <서울 사대문 안길 스토리 콘텐츠개발>, <재미있는 세기음식 이야기>, <숨 쉬는 갈색 도자기 옹기>, <우리 꽃 문화의 디지털 형상화 작업>, <서울 문화재 기념표적>	9

*출처: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위 <표 1>의 과제 내역을 보면, 매우 다양한 한국의 문화원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유공모, 지정과제, 정책과제 등 공모를 통한 소재의 발굴에서 결과물을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²⁶⁾ 그리고 2005년부터 글로

26) 한정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기술 및 문화재 복원 현황」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8, 6-13쪽; 김민영·박경신, 「디지털 문화유산 여행가이드」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8, 93-101쪽; 박소연, 강승묵, 「디지털문화재 사례발표 : 가상현실 기반의 경기전 디지털 복원」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8, 70-79쪽; 김영원·진병환, 「3차원 형상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환두대도의 디지털 원형복원」 『한국콘텐츠

별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로 보는 앙코르왓>, <세계의 와인문화>)도 개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정된 과제의 범주는 신화, 전설, 민담, 역사 문학 등의 문화원형 창작 소재를 개발한 ‘이야기형 소재’, 회화, 서예, 복식, 문양, 음악, 춤 등의 문화원형 창작 소재를 개발한 ‘예술형 소재’, 전투, 놀이, 외교, 교역 등 문화원형 창작 소재를 개발한 ‘경영 및 전략형 소재’, 건축, 지도, 농사, 어로, 음식, 의학 등의 문화원형 창작 소재를 개발한 ‘기술형 소재’와 같은 몇 개의 창작 범주로 나눌 수 있다.²⁷⁾

2004년부터 개설되어 운영 중인 ‘문화콘텐츠닷컴’은 공공 문화콘텐츠 인터넷포털시스템으로 선정된 과제를 모은 문화원형 전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화원형 사업에서 산출된 결과물들을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KBS <역사스페셜>이 역사문화 수업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 음향, 애니메이션 등은 문화유산 관련 학습에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문화산업의 소재를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민속, 문학 등의 인문학 및 순수 예술 분야와 기초 학문 분야에 인문학의 응용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²⁸⁾

이렇게 대규모의 정부지원 디지털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마련된 정보에 대한 서비스는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전통문화유산교육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비록 아직까지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북한 관련 역사·문화·민속·

학회논문지』 Vol.5 No.4, 2005, 133-140쪽.

27) <http://www.kocca.or.kr>

28) 이남희, 『문화콘텐츠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활용에 대하여』 『오늘의 동양사상』 제14호, 2006, 270-273쪽.

예술 영역의 디지털 콘텐츠화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사업에서는 북한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주체의 선정과 정부의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심 과제가 되어 왔으나, 앞으로의 과제는 문화콘텐츠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정리된 정보를 잘 응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하여 유형·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에서 구축된 문화콘텐츠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2. 북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

남북의 문화유산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치적 대립이나 문화적 충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소재가 풍부하며 북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화에 있어서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이 가능하다.²⁹⁾

북한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국가지식정보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 DB는 북한의 유적·유물관, 민속문화관, 멀티미디어관, 자연지리 정보관, 인문지리 정보관, 행정구역 정보관 등을 아우르고 있어 북한 문화유산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

29)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여 문화콘텐츠로 제작하고 복원하는 과정은 사업을 기획하고 결과물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를 거친다. 기획 단계(사업의 방향, 개발의 범위, 대상을 선정하여 탐사하거나 발굴하는 작업) - 디지털화 단계(문화유산의 각종 내용을 컴퓨터에 정보화하여 사진촬영이나 3D스캐닝을 통해 디지털화 하는 단계) - 아카이빙 단계(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로 검색과 콘텐츠의 유통이 가능한 형태로 통합하는 단계) - 디지털 복원 단계(고증과 자문을 통해 문화원형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디지털로 복원하는 단계) - 전시 및 서비스 단계(가상공간 체험, 다차원적 체험, 인터넷이나 모바일 형 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시하거나 서비스하는 단계). 한정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기술 및 문화재 복원 현황』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8, 7쪽.

할 수 있다.³⁰⁾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 DB 서비스는 1966년부터 30여
간 조사된 북한 자연·인문지리 DB, 조선향토대백과사전정보 DB, 북한
2004년판 최신 행정지도, 북한 행정체계, 지역개관 및 역사자료 DB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북한 문화유산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박물관으로 북한 관련 유
물, 유적 및 전통 민속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로 국립공주박물관의 북한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두드러진 경우이다.³¹⁾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콘텐츠 구축에 대한 정부와
연구기관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에서도 역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04년 과제로 선정된 <고구려 고
분벽화>, <해동성국 발해>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문화
원형 사업이 매우 미진하다는 점이다. 북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과 서
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과 정보 서비스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지라도, 학교와 사회를 아우르는 통일교육의 입장에서 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의 구축과 활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통일교육과
문화유산 관련 홈페이지들은 대체로 각 사이트 사이의 링크 기능이 취약
한 형편이기 때문에 통합 사이트는 남북 문화유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굳이 각 사이트의 개별 홈페이지를 힘들
게 검색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접속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
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관련 문화콘텐츠는 단순히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 만들
어 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의

30) <http://www.cybermk.net>

31) 조선유물유적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2』,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정재훈 외, 『북한의 문화유산 1, 2』, 고려원, 1990; 유홍준,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상)』, 중앙M&B, 2000; 유홍준,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하)』, 중앙M&B, 2001.

축적, 북한 측과의 학술적인 교류 및 공동연구 성과 없이는 좋은 문화유산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역사학이나 고고학 관련 정보를 보다 현실감 있게 구축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주요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 <표 2>는 한국관광공사에서 1994년 펴낸 『북한지역 관광상품 개발방안』에 소개된 북한의 주요 문화관광자원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표 2> 북한의 주요 문화관광자원

구분	주요문화자원	
	지역	문화자원
국보·보물 유물 유적	평양	대동문, 보통문, 동명왕릉, 평양종, 숭인진, 칠성문, 중흥사 당간지주, 단군릉, 대성산성, 연광정, 안학궁터, 홍복사 7층탑, 을밀대, 최승대, 영명사 8각석불
	남포	강서대·중·소묘, 약수리 무덤, 덕흥리 고분, 황룡산성
	개성	공민왕릉, 대흥산성, 선죽교, 양서원, 만월대, 성군관, 연복사종, 개성남대문
	평안북도	의주 남문, 통군정, 고려장성, 철웅성
	자강도	공귀리 원시유적
	황해남도	안악고분, 소형서원, 남평양유적, 관산리 고인돌
	황해북도	석빙고, 지탑리 유적
	함경남도	진홍왕 순수비, 함흥본궁, 선화당
	함경북도	굴포리 원시유적
사찰	평양	광법사
	개성	현화사
	평안남도	안국사
	평안북도	보현사, 심원사, 천주사, 서운사
	황해남도	월정사
	황해북도	성불사, 연탄 심원사
	함경북도	개심사
	강원도	유점사, 표훈사, 정양사, 석왕사

구분	주요문화자원	
	지역	문화자원
동·식물 보호구역	평안남도	자모산 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철산 원도 바닷새 보호구, 선천 나비섬 바닷새 보호구
	황해남도	장산곶 식물보호구
	황해북도	탑동산 식물보호구
	함경북도	관모봉 식물보호구, 옹기군 알섬 바닷새 보호구
	양강도	차일봉 북수백산 식물보호구, 백두산 식물보호구
	강원도	통천군 알섬 바닷새 보호구
향토음식	관서지방	평양냉면, 대동강 송어국, 평양온반, 평양쟁반, 평양어죽, 갈비국, 갈비구이, 뽕장어구이, 평양비빔밥, 평양백김치, 대동강 송어찜, 가지요리, 녹두지짐
	해서지방 및 개성	해주비빔밥, 칼국수, 메밀국수, 녹두묵, 녹두농마국수, 도미국수, 송어찜, 개성보쌈김치, 편수, 설렁탕, 추어탕, 경단, 약밥, 신선로, 신원백설기, 삼계탕, 장연파배기
	관북지방	가재미식혜, 명태식혜, 신평명란젓, 섬조개밥, 함흥냉면, 감자농마국수, 강냉이농미지짐, 감자떡, 귀밀떡
	양강도, 자강도 산간지대	갯김치, 감자농마국수, 감자떡, 당면, 감자농마강정, 강냉이떡, 수수떡, 언감자국수
	강원도	금강신선로, 송도신선로, 금강산 돌불고기, 버섯요리
향토술	평양	김홍로주, 생강술, 돌배술
	개성	고려인삼주, 죽력고주
	평안도	양덕소주, 벽향주
	자강도	강계포도주(인풍주), 들쭈술, 다래술
	양강도	백두산월굴주, 들쭈술, 다래술
	황해도	해주부용주, 단홍주, 경암주, 불개미술, 이강고주
특산과일	평양	밤, 왕대추, 분홍토마토, 단벚
	남포	룡강 흰복숭아
	개성	佳谷 대추
	황해남도	해주 배, 응진 감
	황해북도	황주 사과, 麟山 잣
	함경남도	덕성 사과, 금야 왕밤
	함경북도	길주 배, 회령 백살구

구분	주요문화자원	
	지역	문화자원
	강원도	안변 호두
특산물	개성	인삼, 자수제품
	평안남도	新陽 藥茶, 안주 甲紗, 영변 藥山緞
	평안북도	태천 옷제품
	양강도	삼지연 들쭉, 해산 아마
	함경남도	신창 송이버섯, 함주 흰콩, 주을도자기, 신흥 수지꽃, 상령초물제품

* 자료: 『북한지역 관광상품 개발방안』, 한국관광공사³²⁾

위의 <표 2>와 같이, 북한의 문화자원은 관광자원으로의 개발과 이용 외에도, 북한 지역의 자연 지리적·역사적·민속학적 특징을 띠면서도 우리 민족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등 선사시대의 유물과 유적, 고조선, 삼국시대, 발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사 유물과 유적은 유구한 민족사의 귀중한 문화적 자원이며, 북한의 유물이나 유적 같은 문화재³³⁾뿐만 아니라 의생활 풍습, 식생활 풍습, 민속놀이, 특산물, 자연유산³⁴⁾ 등은 남북한 주민 상호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

32) 한국관광공사, 『북한지역 관광상품 개발방안』, 한국관광공사, 1994, 62-63쪽.

33) 북한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1994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고, 199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유물 보호법>이다. 이 법은 모두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제정되었던 <역사유적과 유물 보호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은 문화유물의 범위를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시유적·성·봉수터·건물·건물터·무덤·탑·비석·도자기 가마터·쇠부리터 등은 역사유적으로, 생산도구·생활용품·무기·조형예술품·고서적·고문서·인류화석·유골 등은 역사유물로 분류하였다. 법률출판사 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04, 333-340쪽.

34) 북한은 1995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고, 199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을 기본으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4장 34조로 되어 있으며, 제2조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체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 생활과 건강 증진을 보장하는데

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며, 전통문화유산 콘텐츠로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³⁵⁾

아울러, 문화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문화교류는 남북의 군사적·정치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북한 학자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남북한 공동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되는 것은 “아, 고구려전”, “고구려특별대전” 등 북한 관련 민족문화유산 전시회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호응이 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분단 상황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고 민족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북한 바로 알기”이며, 단일 민족으로서 수천 년 동안 공유했지만 분단과 전쟁 이후 이념과 체제의 대립 때문에 교육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³⁶⁾ 참다운 민족공동체를 준비하는 새로운 통일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에서 모두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에 뿌리를 둔 민족문화의 기

이바지 한다”고 범안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 범은 산·바닷가·호수·폭포·계곡 등을 명승지로, 동식물·화석·동굴·자연바위·광천 등을 천연기념물로 정하고 있다.

35) 문형태·조용주·박경신·박소현, 『고구려 고분의 가상현실을 통한 복원의 사례 분석 연구』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5.

36) 문화발전연구소가 실시한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생활문화, 언어, 문화제와 전통문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문화, 언어, 문화제와 전통문화 등은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와는 상관성이 적고 민족문화유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남북문화교류가 민족문화유산 교류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문화발전연구소, 앞의 논문, 100쪽.

반을 온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일환으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서비스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³⁷⁾

나가기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통하여 통일에 기여하기 보다는 냉전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일교육에서 이데올로기 교육을 다양하고 북한 이해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교육적 상황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하겠다. 북한 핵문제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을 통하여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은 이미 정보화 시대와 열린교육 시대에 학습자들에게 정보화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적합한 개별화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첨단매체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구축과 활용은 사이버문화에 익숙한 N세대 학생들을 끌어들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N세대들을 지도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한 방법으로 중요성을 가진다.³⁸⁾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두된 사이버 통일교육이 신세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 모두를 향한 교육방법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며, 새로운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개방형 교육방법이기도 하다.³⁹⁾

37) 이춘길,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의 방도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8, 182쪽.

38) 조성태, 『인천지역 학교통일교육 - N세대 눈높이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 『통일한국』, 2001, 2월호, 71쪽.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은 비용 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비용과 효율성의 제약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합한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료의 구축과 서비스이다. 인터넷 이용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이다.⁴⁰⁾

그리고, 이미 교단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각 급 학교의 교실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43인치 프로젝션 TV, 펜티엄 컴퓨터, 초고속 인터넷 연결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레코터를 기본으로 하는 교단 선진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들을 통일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직무연수 및 해당 교육청의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정보의 제공은 교실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39) 임유진, 「전북지역 청소년 통일외식 여론조사: 통일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아요」 『민족 21』 통권 104호, 2009.11, 116-117쪽.

40)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식으로 과반수 이상이 <현장견학·체험학습(61%)을 선호했으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수업(23.5%)>, <토론·토의식 수업(10.4%)>, <강의식 수업(5.0%)> 등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현장견학·체험학습>이 가장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지만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남북관계의 경색 등 교육 여건상 극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버 문화유산 인프라의 구축과 서비스는 학습자들에게 간접경험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적 대안이라 하겠다. 양정훈, 「통일교육의 방송·인터넷 활용방안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2006, 382쪽.

41)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찾게 하고 그것을 수업에 맞게 가공하여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는 학생수업(Student Teaching)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주게 된다. 교사는 통일교육을 위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자료들의 소재를 안내하고 수업방법을 지도하는 선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가공하여 조별 준비내용을 발표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게 한다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작한 자료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백춘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2호, 1999,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유산 교육은 학교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종합전산망 구축을 시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준비해 왔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은 이미 일선 학교에서 활용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를 이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다.⁴²⁾ 이는 아직까지 관련 교육적 콘텐츠 개발이 미진한 이유도 있지만, 통일교육과 문화유산교육을 접목시켜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다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념과 제도를 포함하는 체제통합과 가치관, 생활방식 등을 포함하는 문화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때, 통일의식의 사회적 확산과 고양을 위해서도 통일교육 및 문화유산 관련 사이트들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학교통일교육이나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개설이나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가상운영체제 구축 및 서비스가 저조한 형편이다. 현재 문화재(문화유적·유물) 위주로 구축되고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유물·유적 뿐만 아니라 민속놀이, 민속예술, 전통음식과 복식, 주거형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 통일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분단 1세대 내지 2세대가 그들의 시각으로 분단 3세대를 교육시키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 분단 3세대들은 전쟁과 분단에 대한 피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은 남의 이야기이거나 관심 없는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통일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은 민족적 동질성

264-266쪽.

42) 김석준, 앞의 논문, 101쪽.

회복을 위해 탈냉전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며, 배타적이고 종족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⁴³⁾ 그러한 의미에서 새터민 교육에도 남북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기관 및 민간 연구단체, 시민단체등 사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통일, 문화유산, 교육, 디지털 전통문화 콘텐츠, 남북한

(논문투고: 2013.5.1 / 논문심사완료: 2013.5.15 / 논문게재 확정일: 2013.5.19)

43) 김창근, 「다문화 시대의 ‘통일 민족주의’와 통일교육」 『윤리연구』 제77호, 2010, 158쪽.

참고문헌

- 고구려연구재단,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역사재단, 2005.
-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협동 연구총서』, 2004.
-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삼인, 2006.
- 권수현, 『통일 ‘이후’ 바라보는 통일교육 실시해야』, 『통일한국』, 2005, 2월호.
- 권수현, 『학교통일교육현장 1: 당위만 강조하고 내용은 부실』, 『통일한국』, 2004, 10월호.
- 김동욱·조옥연·김성준, 『개성역사지구』(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북한문화 관련 자료집 1), 2004.
- 김민영·박경신, 『디지털 문화유산 여행가이드』,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8.
- 김석준, 『디지털 시대의 통일교육 -첨단 기술 통한 고품질의 통일교육 제공한다』, 『통일한국』, 2007, 4월호.
- 김석준, 『디지털시대의 통일교육 -통일교육 전용의 특화사이트 개설 필요』, 『통일한국』, 2008, 1월호.
- 김성우, 『외국의 문화유산 보전 동향, 도시문제』, 2008, 3월호.
- 김성윤, 『웹을 통한 통일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2호, 2002. 08.
- 김영원·전병환, 『3차원 형상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환두대도의 디지털 원형복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5 No.4, 2005.
- 문형태·조용주·박경신·박소현, 『고구려 고분의 가상현실을 통한 복원의 사례 분석연구』,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 집』, 2005.
- 박경신·조용주·강승묵, 『협동적 문화체험을 위한 텐저를 가상문화유산 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집』 10(10), 2006.
- 박상천 외,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 박소연, 강승묵, 『디지털문화재 사례발표 ; 가상현실 기반의 경기전 디지털 복원』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8.
- 박윤식, 『중고생들 통일 필요하지만 관심 없다?』 『통일한국』 통권 제315호, 2010.03.
- 박종현,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 다양한 교수방법 개발로 교육효과 높인다』 『통일한국』, 2001.08.
- 박찬석,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해의 관점과 방향』 『교육과정평가연구』 Vol.6 No.2, 2003.
- 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04.
- 배영동,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제6호, 2005.
- 백춘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2호, 1999.
- 손기웅,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차 청년위원회 결과보고)』, 2006.06.
- 양정훈, 『통일교육의 방송·인터넷 활용방안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2006.
-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1 No.2, 2008.
- 오영찬, 『문화유산과 박물관, 그리고 역사교육』 『역사와 담론』 제53집,

2009.

- 유인화·박선희·전병호, 『문화원형복원 키오스크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2권 제1호, 2004.
- 유홍준,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상)』, 중앙M&B, 2000.
- 유홍준,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하)』, 중앙M&B, 2001.
- 윤기영, 『유아 통일교육을 위한 전통문화교육 적용상의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Vol.38, 2004.
- 이재주, 『유비쿼터스 시대의 불교문화 콘텐츠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이남희, 『문화콘텐츠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활용에 대하여』 『오늘의 동양사상』 제14호, 2006.
- 이장원, 『“겨레사랑, 평화사랑 청소년 통일캠프”를 열고나서: 체험 학습적 통일교육 가능성 확인』 『통일한국』, 1999.09.
- 이장원, 『통일교육 현장 보고서: 금강산 통일기행, 청소년 통일동아리 싹 틔우다』 『통일한국』, 2000.04.
- 이춘길,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의 방도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8.
- 임유진, 『전북지역 청소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통일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아요』 『민족 21』 통권 104호, 2009.11.
- 장경희, 『북한의 박물관』, 예맥, 2010.
- 전병철·서민태, 『함께 하는 통일교육』 『초등우리교육』, 1996.06
- 전승환,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통일교육으로』 『통일한국』, 2001.05.
- 전영준, 『문화사교육 콘텐츠 구성을 위한 금석문 자료의 활용』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호, 2008.

- 정영훈, 「북한의 민족문화유산 계승, 발전 정책」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 10집, 1997. 290-294
- 정영훈, 「최근 단군 연구 관련 인식 혼란과 과제」 『단군학연구』 제7호, 2002. 279-280
- 정재걸, 「학교교육과 전통문화교육」 『전통과현대』 1998. 여름호, 38-65.
- 정재훈 외, 『북한의 문화유산 1, 2』, 고려원, 1990.
- 정진경, 「더불어 사는 연습 -문화이해지로 하는 통일교육」 『우리중등교육』, 2001. 06.
- 정향석, 「학생들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실태분석」 『호남정치학회보』 Vol.15, 2003.
- 조선유물유적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2』,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조성태, 「인천지역 학교통일교육 - N세대 눈높이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 『통일한국』, 2001, 2월호.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 지병목, 「문화유물 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문화재』 제36호, 2003.
- 추병환, 「학교통일교육, 다문화 시민양성 모색해야」 『통일한국』, 2011.02.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통일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통일연구원, 2004.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 「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통일한국』, 2002, 2월호.
- 하문식, 「북한의 유적답사와 고고학계 연구동향」 『백산학보』 제64호, 2002.
- 하문식, 「북한의 박물관」 『박물관학보』 제5호, 2002.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개성공업지구 1단계 문화유적 남·북 공동조

- 사 보고서』(토지박물관 학술조사 총서) 제23집, 2005.
-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제30권 1호, 2007.
- 한정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기술 및 문화재 복원 현황』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08.
- 한창균, 『북한의 구석기 유적 연구』 『백산학보』 제48호, 1997.
- 한창균,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북한 고고학계의 동향과 시각』 『한국고대사연구』 제25호, 2002.
- 황진숙,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2호, 1999.

◎ 인터넷 사이트

-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main.jsp>
- 국립공주박물관: <http://gongju.museum.go.kr>
- 국립문화재연구소(북한문화재 자료관): <http://north.nricp.go.kr/nrth/kor/inx/index.jsp>
-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남북문화통합연구소: <http://www.multicorea.org>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http://www.onekorea.or.kr>
- 독립기념관: <http://www.i815.or.kr>
- 경기문화재단: <http://www.museum.go.kr>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운주사): <http://www.unjusa.culturecontent.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미켈란젤로프로젝트: <http://www.grapics.stanford.edu/projects/mich>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http://www.kcrc.or.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www.acdpu.go.kr>

북한문제조사연구소: <http://www.koreascope.org>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용인시청: <http://www.yonginsi.net>

조선일보 북한문제연구소: <http://www.NKchosun.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www.nk.joins.co.kr/info.html>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통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MA/>

통일학연구소: <http://www.onekorea.org>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http://redirect.hani.co.kr/durihani_up.html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북한문학예술): <http://www.nk-culture.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nktech.net>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aks/Default.aspx>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main/main.asp>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정보뱅크: <http://www.nk-infobank.com>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index.do>

The Intention about cultural heritage education concerned on national unification - Centering around digital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

Park, Jae-Young

In this paper, web-service construction and necessity of its practical use for 'N generation(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ommon people have been considered into four groups as following:

First, North and South Korea shared the ethnic homogeneity of cultural heritage can contribute to the recovery and reunification as one of the cultural content. Second, what is the Status and Problems in the country's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and service? Third, what is Heritage Status and challenges of digital contents of North Korea? Fourth, what is Heritage Status and challenges of digital contents of North Korea? Fifth,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that is currently available, how should be taken advantage of a unified education.

Cultural heritage education for future national unity meet the requirement and change of the unity-oriented and post-cold war era for the restoration of homogeneity, and should move into the direction of accommodating not exclusive and non-ethnic nationalism but a variety of ethnic and cultural view point. In addition,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digital cultural heritage content and building organic network

between government agencies, private research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provides information in cyberspace should have to be implemented and focused to apply efficient use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to prepare the Unification with the active promotion against general public.

Key Words : Unification, cultural heritage, education, digital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south & north Korea